

#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 : 역대 지방선거 후보 득표율의 통합자료 분석\*

황 아 란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 이슈와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선거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역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후보득표율에 대한 통합자료를 생성하여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치의 정당영향이 각급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시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현직의 이점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정당 요인은 기초선거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부정적인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규명된 반면,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각급 선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지방선거, 현직효과, 배제효과, 초선효과, 재출마효과

## I. 서론

지금까지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연구관심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서 지방선거의 비중이 국정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실시제의 지방선거를 분석하기 용이하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 특히 경험적 분석에 필요한 각급 지방선거에 대한 자료는 유권자 설문조사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것이고, 선거결과와 집합자료 역시 매우 방대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선거 등 특정 선거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등 특징을 밝히는 데 치중했던 것은 각급 선거를 동시에 다루기 어려운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동일 시점에 공직을 달리하는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각급 선거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최근 2014년까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자료를 생성하여 각급 선거 간 비교를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통해 지방선거의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단일한 시점이나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지방선거 연구가 지닌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난 20년간 각급 지방선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나타내는가를 통하여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널리 인정된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과 지역주의 정당지지, 그리고 현직 효과 등이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역대 지방선거 전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에 좌우되고 지역주의 정당지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상은 지방정치 차원의 지역 이슈보다 정권심판론의 중앙정치 이슈가 지배적이며, 지역주의 정당지지에 의해 일당 독점적인 구조가 강한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지방선거가 지방의 행사라기보다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지역주의가 예전보다 약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현직효과는 지방선거가 비록 중앙정치적인 정당의 강한 영향을 받지만 지방정치 차원의 단기적인 현직의 후보요인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이곤수·김영중, 2010; 황아란, 2013).

본 분석에서는 특히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각급 선거 간 특징과 차이를 살필 것이다. 본문에서 논의하겠지만 개념적으로 현직효과는 현직이 누리는 공직에 부여된 혜택과 그로 인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포괄한다. 이는 최근 기초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에 대한 연구(황아란, 2014)에서 경험적으로 규명된 바 있고, 역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의 당락에 대한 연구(황아란, 2015)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 역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선거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인 후보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삼고, 분석대상을 확장하여 광역단체장선거도 포함한 각급 선거 간 통시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다음은 먼저 한국 지방선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현직의 이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논의한 후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현직효과를 비롯한 소속정당과 지역주의 등이 득표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초 분석(ANOVA, t-test)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할 것이며, 특히 각급 선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선거 전반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와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 II. 한국 지방선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1. 정당요인과 중앙정치의 영향

선거연구에서 정당과 이슈, 후보는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선거의 특징을 살피는 데도 중요하다. 다만 한국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는 지역 현안이

나 지방적인 성격의 이슈보다 정권 심판론 또는 안정론을 비롯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배적이란 점에서 중앙정치의 정당 요인으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요인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모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적 동인으로 정당일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Campbell et al., 1960), 정부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반영하는, 즉 합리성을 내재한 요약된 평가로도 간주된다(Fiorina, 1981). 먼저 정당이 한국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 지방선거 당선자의 대부분이 주요 정당 소속인 점에서 잘 나타나며(황아란, 2013), 이는 선거경쟁의 중심이 정당이란 점에서 당연하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경제전반에 대한 평가 등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대체로 여당이 제1야당보다 불리하였던 것은 정권심판론의 이슈가 미친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1998년 지방선거와 최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였던 것은 대통령의 임기초반에 치러진 선거주기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황아란, 2015). 하지만 선거주기 효과, 즉 대통령의 인기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하고 불리한 문제는 그 자체로 중앙정치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모든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주의의 정당지지는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닌 특징이다. 중앙정치에서 형성된 지역주의가 대표범위가 지역에 국한된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치의 일당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조성대, 2003; 송광운, 2008). 즉 지역주의에 의해 지방차원에서의 선거 통제기능이 마비되고,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현상은 두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의회외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논란이 반증해 준다.<sup>1)</sup> 즉 지방선거의 정당참여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인 것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정당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데, 공천부패를 비롯한 정당공천의 폐해가 발생하는 것도 그 만큼 후보의 소속정당이 당락을 좌우하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다. 사실 정당공천제의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지방선거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이 지대하며, 그로 인해 중앙정치에 함몰되는 지방선거 과정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데 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중앙정치의 영향이 지방선거에서 이토록 강한 이유는 주요 행·재정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유권자의 자치효능감이나 선거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거경쟁의 중심이 되는 정당이 전국적인 쟁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당 간 경쟁으로 지방선거를 구조화 시키는 정당의 전략은 효율적인 지지 동원의 기제로, 전국선거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심판대로 간주되기 쉬우며, 또 각급 선거의 동시실시에서 정당은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비용을 줄여주는 유용한 정보의 요약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가상준, 2009).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은 경험적으로도 널리 밝혀져 왔는데, 주목할 점은 각급 선거 간 비교에 중점을 둔 몇몇 연구에서 그 영향이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하다는 특징이다(황아란,

1) 정당공천제의 찬반 논쟁에 대해서는 이동윤(2010), 강경태(2009), 성기중(2009), 송광운(2008), 박재욱(2007), 주용학(2007) 참조.

2012; 2013). 이러한 특징은 중앙정치의 영향이 강한 광역선거에서 여야 정당 간 경쟁이 매우 중요한 선거의 중심축이 되는 데 비하여, 주민과 근접한 기초선거에서는 후보 인지도에 근거하여 무소속의 당선도 유리할 수 있는 선거환경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지니는 일반화의 한계, 즉 특정 시점에 국한된 각급 선거 간 비교는 통시적인 비교 분석의 검증을 요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20년간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각급 선거 간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다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 2. 후보요인과 현직효과

투표선택의 결정요인으로서 후보는 선거구마다 다른 지방적인 차원의 요인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정당요인과 대비된다. 이는 특히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선거구 간 차이나 선거 간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중요하지만, 한국 지방선거에서 후보요인에 대한 연구관심은 중앙정치의 정당 영향에 가려져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소위 ‘3김 정치’가 종식되고 지역주의가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현직의 후보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가는 것이 주목된다(임성학, 2005; 윤종빈, 2006;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9). 다만 현직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데 비하여,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효과에 대한 주장은 특히 단체장선거 분석에서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황아란, 1999; 김정기, 1999).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공직의 지명도와 가시성이 높은 단체장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또 인지도가 월등한 현직후보가 당선경쟁에서 누리는 이점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단체장선거에 미치는 현직효과의 중요성은 재차 검증된 사실이다(이곤수·김영중, 2010; 황아란, 2012; 2013; 2014).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는 선거경쟁에서 현직후보가 신인후보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론적으로 공직선거에서 현직후보가 누리는 이점은 공직에 부여된 혜택과 그로 인한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배제라 할 수 있다. 전자는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공직에 부여된 혜택 - 예를 들어 재임기간 동안 선거구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비롯하여 공직수행의 선전을 통한 업적 부각과 입장 표명 등 - 을 통하여 인지도의 상승과 대중적 명성을 얻을 수 있어 신인후보보다 선거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Ansolabehere et al., 2000; Cain et al., 1987; Cover, 1977; Fiorina, 1977; 1989; Mayhew, 1974).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현직의 정보는 유권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낮은 신인 후보보다 공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현직후보가 더 믿을만한 안전한 선택으로 여길 수 있다(Jacobson, 1987; Quattrone and Tversky, 1988). 여기에는 또 반복된 선거경험과 조직력 확보가 효과적인 선거운동과 지지확산에 중요하다는 것도 들 수 있다.

한편 후자의 배제효과는 현직후보의 이러한 강점이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전후보에게 두려움을 주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시키는 간접적인 효과(scare-off effect)를 지닌다는 것이다(Jacobson, 1980; 1989; Jacobson and Kernell, 1983; Banks and Kieweit, 1989; Cox and Katz,

1996; Lewitt and Wolfram, 1997; Gordon et al., 2007; Ashworth and Bueno de Mesquita, 2008). 즉 선거 경쟁력이 높은 신인후보는 현직을 상대로 어렵게 도전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기보다 현직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를 택하여 출마하는 것이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결국 우수한 신인후보들이 현직선거구의 출마를 피하게 되고, 따라서 현직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후보를 만나게 됨으로써 높은 선거경쟁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현직효과에 이러한 구성개념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최근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 분석(황아란, 2014)을 비롯하여 역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의 당락에 대한 연구(황아란, 2015)를 통해 현직의 이점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특정 시점이나 특정 선거의 비교, 또는 선거 경쟁의 특정 변수에 국한된 분석결과는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즉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독립적으로 현직의 간접적인 배제효과 역시 지방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보다 다양한 각급 선거의 통시적인 비교와 더불어 후보 득표율 등 선거경쟁력의 다양한 측정지표를 통해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황아란(2014; 2015)의 후속 연구로서 역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후보 득표율은 선거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종속변수이며, 당락과 달리 연속변수로 측정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 광역단체장선거와 같이 사례수가 제한적인 경우에도 분석모형 구성의 적합성(model specification)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닌다.<sup>2)</sup> 특히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광역단체장선거도 본 연구의 각급 선거 간 비교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달리하는 각급 선거 간 비교는 현직의 상이한 인지효과를 규명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각급 선거 간 특징과 차이를 밝히는 경험적 증거로서 매우 유용한 분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기초의원선거를 제외시킨 것은 2006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의 도입으로 인해 역대 선거의 통시적인 분석이 적합하지 않고, 또 선거구제를 달리하는 각급 선거 간 비교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 Ⅲ. 연구 설계 및 가설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을 밝히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비교의 분석틀을 적용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현직효과에 대한 분석은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그리고 비(非)현직선거구(open seat)의 경쟁후보로 나누어 득표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황아란, 2014). 즉 선거구 유형은 현직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와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로 나누고, 출마후보의 유형은 세 가지, 즉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그리고 비현직선거구의 후보(이하 ‘경쟁후보’)로 구분하는 것이다. 현직의 이점을 이해하

2) 예를 들어 모든 당선자가 남성인 경우 성별은 당락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는 데 있어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현직후보뿐 아니라 현직에 맞서는 도전후보의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직의 높은 교체율이나 낮은 재선율을 고려할 때(황아란, 2012; 2013), 현직후보뿐 아니라 현직에 도전하는 후보의 경쟁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직의 이점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현직선거구와 비(非)현직선거구로 나누어 현직후보와 비현직선거구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비교하거나, 혹은 현직선거구를 대상으로 현직후보와 그에 도전하는 후보의 득표율을 비교하는 것이 고전적인 방법이다. 즉 소속정당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현직후보와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현직 여부에 따른 득표율의 차이, 다시 말해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직선거구를 중심으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포괄하여 현직의 이점을 살피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직의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따로 살피려면, 비현직후보를 구분하여 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와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소속정당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와 비현직선거구의 후보를 비교하는 것은 경쟁상대로서 현직후보의 존재 유무에 따른 비현직후보의 득표율 차이, 다시 말해 현직의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각급 지방선거 간 비교 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현직의 후보요인이 득표율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의 역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각급 선거 간 공통점과 차별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물론 전국 동시실시의 지방선거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이슈 등 중앙정치의 영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직의 이러한 효과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요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각급 지방선거의 통시적 비교를 통하여 현직의 후보요인과 소속정당에 따른 정권심판론의 중앙정치 이슈 효과, 그리고 지역주의 정당지지 등이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지방선거 전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가설 및 분석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와 비교하여 득표율이 높은지, 그리고 현직의 배제효과는 비현직후보를 둘로 구분하여 현직선거구에 출마한 도전후보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득표율이 낮은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직효과에 중점을 둔 본 연구의 두 가지 기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현직의 직접효과로서, 현직후보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현직의 배제효과로서, 현직선거구에 도전후보로 출마한 비현직후보의 득표율은 비현직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보다 낮을 것이다.

이 두 가설을 결합하면, 현직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 순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가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만, 본 분석에서는 현직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주장들, 예를 들어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가 배제효과보다 크다는 주장(황아란, 2014; 2015)과 단체장선거의 현직효과가 지방의원선거보다 높다는 각급 선거 간 특징(황아란, 2013; 2015)에 대해서도 역대 선거의 통합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본 분석은 현직 후보의 선수효과와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도 포함함으로써 인지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현직의 초선효과는<sup>3)</sup> 비현직후보로서 당선될 당시의 낮은 경쟁력 때문에 초선의 현직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역구 활동과 인지도 확대에 노력한다는 논리와 초선의 경우 현직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과거보다 인지도와 지지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으나 재선 이후는 한계효용의 법칙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Alford and Hibbing, 1981). 한국 지방선거에서 현직후보의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만, 그리고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 모두 해당된다는 최근 연구(황아란, 2014; 2015)에 대하여 본 분석은 광역단체장선거를 포함한 각급 선거 간 통시적인 비교로써 이를 규명해 볼 것이다.

한편, 권권심판론의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소속 정당의 영향은 제1야당후보의 득표율이 여당후보보다 높을 것이며,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미치는 영향 역시 영호남에서 지역지 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다른 경우보다 득표율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이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하며, 따라서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중앙정치 이슈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클 것이라 최근의 주장(황아란, 2013; 2015)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현직의 후보요인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치의 이슈가 미치는 소속 정당의 영향과 지역주의 정당지지에 의한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비현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득표율과 비교하여 현직후보가 높고(가설1),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낮을 것(가설2)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각급 선거 간 비교를 통해서도 검증할 것이다. 특히 각급 선거 간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차이는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적 차이에 기초할 때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현직효과가 더 강할 것이며, 또 중앙정치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정당 영향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 정당지지는 기초선거보다 광역선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분석자료 및 방법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여섯 차례 광역 및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후보자 데이터다. 현직효과에 중점을 둔 본 분석에는 1995년 첫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현직이 출마하게 된 1998년부터 최근까지, 즉 1998

3) 초선효과란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을 구분할 때 초선의원의 2선 도전 시 지지율의 상승현상(sophomore surge)으로 많은 연구의 주목을 받아왔다(Erikson, 1972; Cover, 1977; Born, 1979; Alford and Hibbing, 1981; Jacobson, 1987; Gelman and King, 1990; Holbrook and Tidmarch, 1991; Levitt and Wolfram, 1997).

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등 다섯 차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를 이용하지만, 현직후보를 파악하기 위해 1995년 지방선거자료도 활용하였다. 참고로 통합자료의 생성은 방대한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는데, 역대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 데이터를 후보 아이디로 연결하여 이전 선거의 출마 여부와 당선 여부 등을 통해 현직후보와 비현직후보를 구분하고, 현직후보의 경우 선수(選手)와 비현직후보의 경우 재출마 여부 등을 변수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직은 동일한 공직으로 4년 전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만을 지칭한다. 즉 중간에 공직을 사퇴하였다가 다시 출마한 후보도 현직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현직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편의상 현직후보로 총칭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는 현직후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현직의 가장 중요한 인지적 이점이 일반선거의 참여를 통해 쌓게 되는 경험과 인지적 확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황아란, 2012; 2013). 또 1인 출마의 무투표 당선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sup>4)</sup> 이들 가운데 현직이 다수이고 특히 단체장선거에서 훨씬 많았던 점은 현직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 분석에 이용될 통합자료에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역대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현직후보는 총 37명, 도전후보는 85명, 경쟁후보는 149명이며, 역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현직후보는 총 727명, 도전후보는 1599명, 경쟁후보는 1328명, 그리고 역대 지역구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현직후보는 총 1611명, 도전후보는 2635명, 경쟁후보는 4191명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현직후보의 경우 선수를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선거에서는 초선 29명, 재선 8명, 기초단체장선거는 각각 556명, 171명, 지역구 광역의원선거는 초선 1335명, 재선 이상 276명이다. 비현직후보의 경우, 이전 선거에 이어 재출마한 경우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 19명, 기초단체장선거 534명, 지역구 광역의원 1023명으로 나타난다.

분석방법은 먼저 기초분석으로 후보 득표율에 대한 t-test 또는 ANOVA 검증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종합분석으로 회귀모형을 개발하여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의 현직효과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 IV. 분석결과

### 1. 기초분석

#### 가. 출마유형별 후보자의 득표율

<표 1>은 역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를 통해 광역 및 기초 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그리고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가 얻은 평균 득표율을 보여준다. 먼저 각급 선거에 따라 출마유형별 후보 득표율을 살펴보면, 첫째

4) 역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1인 출마의 당선은 총 2명으로 모두 현직이며, 기초단체장선거는 총 49명(현직 40명 과 비현직 9명), 그리고 광역의원선거는 총 203명(현직 108명, 비현직 95명)이었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경쟁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각각 59%, 18%, 28%로 나타난다. 즉 현직후보가 경쟁후보보다 득표율이 약 30%p 높으며, 경쟁후보는 도전후보보다 약 10%p 높다. 둘째,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경쟁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각각 48%, 24%, 28%로, 현직후보가 경쟁후보보다 약 20%p 높으며, 경쟁후보는 도전후보보다 약 4%p 높은 득표율을 나타낸다. 셋째, 광역의원선거에서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경쟁후보의 평균 득표율은 각각 48%, 30%, 36%로, 현직후보가 경쟁후보보다 약 12%p 높으며, 경쟁후보는 도전후보보다 약 6%p 높은 득표율을 나타낸다.

〈표 1〉 각급 선거의 출마유형별 후보 득표율(1998년-2014년)

구분	현직선거구		비현직선거구	통계량(F)
	현직후보	비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광역단체장	58.6% (37명)	18.0 (85)	28.2 (149)	51.0*** ABC
기초단체장	48.1 (727)	23.6 (1599)	28.0 (1328)	486.6*** ABC
광역의원	47.5 (1611)	29.9 (2635)	36.0 (4191)	492.5*** ABC

주) \*\*\*p<.01, ABC 표기는 ANOVA 사후검증의 평균값 차이 여부를 뜻함

참고로 출마유형별 후보의 득표율을 각급 선거 간 비교하면, 현직후보의 득표율은 광역단체장선거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선거보다 월등히 높으며, 현직선거구에서 현직에 도전한 후보의 득표율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순을 보인다.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비현직선거구 경쟁후보 득표율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선거보다 광역의원선거에서 높게 나타난다.

종합하면, 광역 및 기초 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모두 현직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후보 즉 경쟁후보가 높으며, 현직선거구에서 현직에 도전한 후보가 가장 낮다. 이는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현직후보와 경쟁후보의 득표율 차이에서 살필 수 있는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광역단체장선거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초단체장선거, 광역의원선거 순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쟁후보와 현직의 도전후보의 득표율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직의 간접적인 배제효과는 광역단체장선거가 가장 크지만, 광역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 나. 소속정당

〈표 2〉는 각급 지방선거의 소속 정당별, 출마유형별 후보자의 득표율을 비교한 것으로, 제1야당 후보의 득표율이 여당보다 높으며,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가장 낮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sup>5)</sup> 또 소속정당을 통제하고 비교할 때 각급 지방선거에서 현직후보의 득표율이 경쟁후보보다 높고, 도전후보가 가장 낮아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배제효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광역단체장선거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제1야당 후보(47%)가 여당 후보보다 약 9%p 높으며, 기타의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소속 정당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F=80.0$ ,  $p<.001$ ). 주목할 점은 이러한 소속정당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당이나 제1야당, 기타 모두 현직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다는 점인데, 다만 기타의 경우는 도전후보(11%)와 경쟁후보(13%)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현직의 배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표 2〉 각급 지방선거후보의 출마유형별 소속정당과 득표율(1998년-2014년)

구분		(소계)	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통계량(F)
광역 단체장	여당	38.9% (64명)	54.5 (12)	26.6 (15)	38.9 (37)	9.4*** ABC
	제1야당	47.4 (72)	63.6 (17)	32.9 (17)	46.6 (38)	12.9*** ABC
	기타	14.8 (135)	54.1 (8)	10.8 (53)	13.3 (74)	27.5*** ABB
기초 단체장	여당	38.5 (862)	50.4 (226)	31.8 (348)	37.3 (288)	116.4*** ABC
	제1야당	45.7 (835)	55.0 (256)	38.3 (288)	44.8 (291)	91.5*** ABC
	기타	19.7 (1957)	38.7 (245)	16.3 (963)	17.9 (749)	222.8*** ABB
광역 의원	여당	42.1 (2490)	51.0 (580)	35.4 (688)	41.6 (1222)	209.6*** ABC
	제1야당	49.4 (2427)	55.4 (586)	42.8 (622)	49.8 (1219)	126.7*** ABC
	기타	23.2 (3520)	32.5 (445)	20.9 (1325)	22.5 (1750)	103.7*** ABC

주) \*\*\* $p<.01$ , ABC 표기는 ANOVA 사후검증의 평균값 차이 여부를 뜻함

둘째, 기초단체장선거는 전체적으로 제1야당 후보의 득표율(46%)이 여당후보보다 약 7%p 높고, 기타의 경우(20%)가 가장 낮다( $F=880.9$ ,  $p<.001$ ). 소속정당을 통제한 상태에서 출마유형별 후보 득표율을 비교하면, 여당이나 제1야당, 기타 모두 현직후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

5) 여당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2002년 민주당, 2006년 열린우리당, 2010년 한나라당, 2014년 새누리당이며, 제1야당은 1998년, 2002년, 2006년 한나라당, 2010년 민주당,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을 뜻한다.

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다. 다만, 기타의 경우는 광역단체장선거처럼 도전후보(16%)와 경쟁후보(18%)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광역의원선거도 제1야당 후보의 득표율(49%)이 여당보다 약 7%p 높으며, 기타 경우(23%)가 가장 낮다(F=2491.5, p<.001). 후보의 소속정당을 통제하고 비교할 때, 현직후보의 득표율이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높고, 현직선거구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공통점은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각급 선거에서 소속정당이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 현직효과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현직후보와 경쟁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소속정당을 통제하고 비교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해 준다. 또 경쟁후보와 도전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여당과 제1야당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현직의 배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다만 기타의 경우는 광역의원선거에서만 유의하였다.

#### 다. 지역주의

<표 3>은 영·호남 지역주의가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영남의 지지정당(한나라당, 새누리당)과 호남의 지지정당(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각자의 지지지역에 출마한 경우와 기타의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 득표율은 기타의 다른 후보보다 월등히 높지만, 이러한 지역주의 영향을 통제하면 각급 지방선거 모두 현직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표 3> 각급 지방선거후보의 출마유형별 영호남 지역주의와 득표율(1998년-2014년)

구분		(소계)	현직후보	도전후보	경쟁후보	통계량(F)
광역 단체장	지지지역	61.1% (41명)	69.1 (15)	45.9 (2)	57.4 (24)	5.8*** A,B,AB
	기타	23.5 (230)	51.4 (22)	17.4 (83)	22.6 (125)	29.7*** ABB
기초 단체장	지지지역	50.9 (547)	57.1 (206)	42.8 (135)	50.0 (206)	45.5*** ABC
	기타	26.4 (3107)	44.5 (521)	21.8 (1464)	24.0 (1122)	375.6*** ABC
광역 의원	지지지역	55.6 (1322)	59.0 (454)	48.1 (203)	55.6 (665)	47.6*** ABC
	기타	32.7 (7115)	42.9 (1157)	28.4 (2432)	32.3 (3526)	303.8*** ABC

주) \*\*\*p<.01, ABC 표기는 ANOVA 사후검증의 평균값 차이 여부를 뜻함

먼저 광역단체장선거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61%)가 기타의 경우보다 무려 약 38%p 높다( $t=14.8, p<.001$ ). 지역주의 여부를 통제하고 출마유형별 후보 득표율을 비교하면, 지지지역에 출마한 경우나 기타의 경우 모두 현직후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사례수가 적어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의 경우 출마유형 간 득표율 차이는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타의 경우는 현직후보와 도전후보, 그리고 현직후보와 경쟁후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초단체장선거는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 득표율(51%)이 기타의 경우보다 약 25%p 높다( $t=34.5, p<.001$ ). 다만 이러한 지역주의의 영향은 앞서 광역단체장선거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주의 여부를 통제하고 출마유형별 득표율을 비교하면 두 경우 모두, 현직후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 그리고 현직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광역의원선거는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 후보 득표율(56%)이 기타의 경우보다 약 23%p 높다( $t=53.3, p<.001$ ). 이는 앞서 광역단체장선거보다 낮고 기초단체장선거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지역주의 여부를 통제하고 출마유형별 후보 득표율을 비교하면 두 경우 모두 현직후보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보다 높고, 현직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각급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지지지역보다 기타의 경우에 훨씬 큰 반면, 배제효과는 지지지역에서 더 크다는 공통점으로, 이는 지역성에 따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달리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황아란, 2015). 일반적으로 현직효과가 정당의 영향이 약한 곳에서 더 크다는 것은,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강한 곳에서는 현직후보든 아니든 득표율이 높아 현직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제효과를 살핀다면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서도 현직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종합하면,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친 지역주의 정당지지는 매우 강했지만, 현직효과 역시 후보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사례수가 적은 광역단체장선거를 제외할 때, 현직후보와 경쟁후보 간 그리고 경쟁후보와 도전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지역주의 정당지지를 통제하고 비교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해 준다.

#### 라. 현직후보의 선수 및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여부

<표 4>는 각급 지방선거별로 재출마한 현직후보의 선수와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여부에 따른 득표율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광역단체장선거의 현직후보는 초선 단체장의 득표율(57%)보다 3선에 도전하는 2선 단체장(65%)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이전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의 득표율(32%)이 처음 출마한 후보(24%)보다 높지만, 이 역시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영·호남에서 지역지지 정당이 아닌 소속의 현직후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높은 경쟁력을 뜻하며, 이러한 현직을 상대로 도전하는 것은 지역지지 정당후보라도 현직이 없는 선거구의 경쟁후보로 출마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직의 배제효과는 다른 곳보다 더 클 수 있다.

〈표 4〉 현직후보 선수 및 비현직후보 재출마 여부와 득표율(1998년-2014년)

구분	현직 후보			비현직 후보		
	초선	2선(이상)	통계량(t)	재출마	첫출마	통계량(t)
광역단체장	56.8% (29명)	65.1 (8)	n.s	31.8 (19)	23.9 (215)	n.s
기초단체장	49.3 (556)	44.0 (171)	4.2***	30.1 (534)	24.6 (2393)	6.2***
광역의원	47.5 (1335)	47.3 (276)	n.s	36.7 (1023)	33.1 (5803)	6.1***

주) \*\*\* p<.01

그러나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현직후보의 선수나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여부가 모두 득표율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초선 단체장출신의 현직후보 득표율(49%)은 2선 단체장보다 약 5%p 높아 초선효과를 확인시켜 준다. 비현직후보의 경우도 이전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의 득표율(30%)이 첫 출마한 후보보다 약 5%p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광역의원선거에서는 현직후보의 경우 초선의원의 득표율(48%)이 2선 이상의 중진의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이전 선거의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의 득표율(37%)이 첫 출마한 후보보다 약 4%p 높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종합하면 현직후보의 초선효과, 즉 선수의 부정적 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만 해당되는 데 비하여,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재출마한 비현직 후보가 첫 출마한 후보보다 득표율 면에서 선거경쟁력이 높은 것은 반복된 선거참여 경험이 선거운동이나 인지도 확산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갑윤·이현우, 2000; 황아란, 2014; 2015)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2. 종합 회귀모형 분석

다음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 지방선거결과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 및 기초 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대한 OLS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현직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역대 각급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로, 무투표 당선자는 제외하였다. 본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내용과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유형은 비현직선거구의 경쟁후보를 기준으로 두 개의 가변수(현직선거구의 현직후보와 도전후보)를 모형에 포함시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배제효과를 규명할 것이다. 즉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구의 경쟁후보와 비교할 때, 현직후보의 득표율이 높을 것이며(가설 1), 현직도전후보의 득표율이 낮을 것(가설 2)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직후보의 경우는 초선을 기준으로 삼아 2선 이상의 현직을 가변수로 조작화하여 선수효과를 검증할 것이며,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첫 출마’를 기준으로 삼아 재출마한 경우를 가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현직의 선수효과는 음의 기호를, 비현직후보의 재출마는 양의 기호가 예상된다. 셋째, 후보의 소속정당은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을 기준으로 두 개의 가변수(여당, 제1야당)를 포함하여 정권심판론의 영향, 즉 여당보다 제1야당의 득표율이 높은지를 살필 것이다. 넷째, 영·호남 지역주의의 영향은 지지지역의 출마여부를 가변수로 포함하여 검증할 것이며, 끝으로 후보수를 비롯해 학력,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와<sup>7)</sup>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선거연도(1998년, 2002년, 2010년, 2014년)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선거 시기별 득표율 변화를 통제하고자 한다.

<표 6>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67%, 60%, 62%이며,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와 소속정당, 지역주의 등이 모두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각급 선거별로 주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계수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현직효과는 현직후보(.22)의 영향이 현직도전후보(-.1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비현직선거구의 후보와 비교할 때 현직후보의 높은 득표율(가설 1)은 현직도전후보의 낮은 득표율(가설 2)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가 배제효과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직의 선수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하여, 비현직후보의 재출마(.11)는 첫 출마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니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속정당으로, 주요정당 후보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에 비해 득표율이 높으며, 특히 제1야당(.37)이 여당(.23)보다 훨씬 높다. 또 지역주의의 영향(.31) 역시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통제변수는 후보수( $p<.01$ )와 학력( $p<.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기초단체장선거에서도 현직효과는 현직후보(.23)의 영향이 현직도전후보(-.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가 배제효과보다 강한 특징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광역단체장선거와 달리 현직의 부정적인 선수효과(-.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기초단체장의 초선효과가 검증된 점이다. 또 비현직후보의 재출마(.08)는 첫 출마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소속정당으로, 여당(.23)보다 제1야당(.35)이 강한 특징을 나타낸다. 또 지역주의 정당지지도 중요한 영향(.18)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시할 점은 그 상대적 영향력이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낮다는 점이다. 그밖에 후보수를 비롯해 학력, 연령, 성별 등 인구경제학적 변수들은 모두 득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광역의원선거도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12)가 간접적인 배제효과(-.07)보다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현직의원의 선수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 비하여, 비현직후보의 재출마(.04)는 첫 출마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광역단체장선거와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득표율에 미치는 소속정당의 영향이다. 특히 여당(.27)보다 제1야당(.44)의 강한 영향력은 광역의원선거에 미치는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역주의의 영향(.24)도 강한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후보수를 비롯해 학력, 연령, 성별 등 인구경제학적 변수들은 모두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성별은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았다( $p<.1$ ).

7) 소속정당과 지역주의에 대한 조작화는 기초분석과 동일하며, 학력은 초졸 미만(1)~대학원졸(6)까지, 성별은 남성=1, 여성=0, 연령은 만나이를 측정하였다.

〈표 6〉 각급 지방선거의 득표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998년-2014년)

변수명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 계수
현직후보	15.57*** (3.06)	.22	11.74*** (0.70)	.23	5.61*** (0.38)	.12
현직도전후보	-6.25*** (2.07)	-.12	-4.58*** (0.48)	-.11	-3.02*** (0.29)	-.07
현직2선	6.78 (5.75)	.05	-3.92** (1.14)	-.04	-0.62 (0.77)	-.01
비현직재출마	10.56*** (3.44)	.11	4.61*** (0.61)	.08	2.49*** (0.40)	.04
여당	12.70*** (2.40)	.23	10.97*** (0.55)	.23	11.14*** (0.32)	.27
제1야당	19.91*** (2.30)	.37	16.80*** (0.57)	.35	18.07*** (0.35)	.44
지역주의	20.43*** (2.69)	.31	10.08*** (0.65)	.18	12.58*** (0.37)	.24
후보수	-3.27*** (0.72)	-.19	-4.65*** (0.16)	-.33	-7.14*** (0.14)	-.37
학력	1.97* (1.18)	.07	1.57*** (0.22)	.08	1.05*** (0.12)	.06
연령	0.18 (0.11)	.06	0.16*** (0.03)	.06	0.11*** (0.02)	.05
남성	0.52 (5.20)	.004	3.66*** (1.27)	.03	0.90* (0.52)	.01
1998년	4.27 (3.16)	.06	1.52** (0.69)	.03	0.93** (0.41)	.02
2002년	1.72 (2.65)	.03	1.17* (0.65)	.02	0.87** (0.41)	.02
2010년	1.69 (2.71)	.03	0.18 (0.65)	.004	1.03*** (0.39)	.02
2014년	2.22 (2.64)	.04	0.19 (0.67)	.004	0.15 (0.40)	.003
상수	6.94 (11.22)		18.40*** (2.41)		35.03*** (1.30)	
통계량	F값=35.2*** R <sup>2</sup> =.674 Adj R <sup>2</sup> =.655 사례수 271		F값=368.2*** R <sup>2</sup> =.603 Adj R <sup>2</sup> =.601 사례수 3654		F값=929.5*** R <sup>2</sup> =.623 Adj R <sup>2</sup> =.623 사례수 8437	

\*\*\*p<.01 \*\*p<.05 \*p<.1

한편, 후보 득표율의 주요 결정요인이 각급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의 후보요인이 직·간접인 효과를 통하여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비현직선거구의 후보와 비교할 때, 현직후보의 득표율, 즉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는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각각 16%p, 12%p 정도 더 높은 데 비하여 광역의원선거에서는 6%p 정도밖에 높지 않다. 현직의 도전후보 득표율 역시 광역 및 기초 단체장선거에서 각각 -6%p, -5%p 정도인데 비하여 광역의원선거는 -3%p 정도로 현직의 배제효과가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단체장선거에서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광역의원선거보다 훨씬 큰 것은 현직후보에 대한 인지효과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직의 부정적인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반면,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각급 지방선거의 공통된 특징임을 보여준다. 즉 기초단체장 현직후보의 득표율은 비현직후보보다 평균적으로 약 12%p 높지만, 삼선에 도전하는 현직 2선의 기초단체장 득표율은 4%p가량 낮다는 것으로, 이는 기초단체장의 초선효과를 확인시켜준다. 한편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은 처음 출마한 후보보다 이전 선거에 출마했던 경험과 그로 인한 인지적 확산 등이 득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시할 점은 비현직후보의 재출마효과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가장 높고(약 11%p), 기초단체장선거(약 5%p)가 광역의원선거(약 2%p)보다 높은 점으로, 이 역시 후보인지도와 관련한 각급 선거 간 차이를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셋째, 후보의 소속정당이 득표율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각급 지방선거의 공통점이며,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과 비교할 때, 특히 제 1 야당후보의 득표율은 기초단체장선거(약 17%p)보다 광역단체장선거(약 20%p)와 광역의원선거(약 18%p)에서 더 높은 반면, 여당후보의 득표율은 광역단체장선거(약 13%p)나 기초단체장선거(11%p), 광역의원선거(11%p)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넷째,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 역시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가장 강하고(약 20%p), 기초단체장선거(약 10%p)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중간평가로써 지방선거에 미치는 정권심판론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심판론과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득표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현직의 후보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주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인 배제효과가 득표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직효과의 개념 구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각급 선거 간 비교를 통해 나타난 특징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소속정당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현직의 후보요인이 지역주의 정당지지보다 득표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현직의 선수효과가 부정적인 특징으로 규명된 점이 흥미롭다. 이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에서 소속정당이나 지역주의 등 정당요인이 현직의 후보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현직의 선수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공통된 특징과 대비되는 것이다.



## V. 결론

최근 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은 2002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흥미로운 추세와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를 앞지르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의 지방선거가 더 이상 국정선거보다 낮은 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지방선거 결과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통하여 중앙정치와의 새로운 관계 변화 속에서 정립해가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보선택은 민주화 이후 도입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왔는가를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각급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중시하여 후보를 선택하였는가는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현직의 직·간접인 효과를 비롯해 중앙정치의 심판론 이슈와 영호남 지역주의 영향 등이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 또는 광역선거와 기초선거에 미친 차이는 비록 새로운 발견은 아닐지라도 역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로써 새롭게 검증하여 각급 선거의 특징과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정당의 영향이 매우 강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보의 소속정당이 각급 지방선거에 모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규명된 것은 정권심판론의 중앙정치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까지 얼마나 지배적이었는가를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로 지방선거의 특징을 말해준다. 영호남 지역주의 정당지지 역시 각급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시할 점은 각급 선거 간에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로,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이러한 정당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이다. 즉 중앙정치적인 정당요인이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은 전국 동시 실시제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심판대로 간주되는 데 있어 기초보다 광역선거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후보가 여당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얻는 것은 선거의 통제기능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작동하여 대통령의 인기나 정부·여당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또 일당 지배의 기관구성이 영·호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의 주요 요인이란 점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중앙정치의 영향 속에 매우 취약한 현실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현직의 후보요인도 지방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가 각급 지방선거의 후보 득표율에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명된 것은 현직의 이점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란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방정치 차원의 요인이 지방선거에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크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거 간에 현직의 이점이 지니는 특징은 현직의 직접적 효과가 간접적 배제효과보다

8)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54.5%, 2014년 56.8%로 2008년 18대 총선(46.1%), 2012년 19대 총선(54.2%)보다 높았다.

크다는 공통점과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현직효과가 강하다는 차별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의 직접적인 효과가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점은 현직 단체장후보의 인지적 이점을 잘 드러내는 조건이 바로 정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단위의 선거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물론 광역단체장의 현직후보도 높은 인지적 이점을 누리지만 중앙정치의 정당 이슈나 지역주의 정당지지가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적은 것으로, 이는 특히 광역의원선거의 낮은 현직효과와 비교할 경우 더욱 뚜렷이 대비되는 정당의 강한 영향이 현직의 인지효과를 압도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흥미로운 발견은 현직후보의 경우 부정적인 선수효과가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초선효과로 드러날 뿐 다른 선거에서는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비현직후보의 경우는 각급 선거에서 재출마한 후보가 첫 출마한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다는 공통점이다. 후자의 경우는 현직후보처럼 비현직후보도 반복된 선거참여 경험이 선거운동이나 인지도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데, 이 역시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 특히 지명도가 높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뿐 아니라 후보의 경력이나 인물적 요인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지방정치 차원에서도 선거의 통제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현직효과가 지방자치에 주는 상반된 시사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직효과가 현직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공직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반영이라면 지방자치의 제도화, 전문화에 긍정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선제한이 적용되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부정적인 선수효과, 즉 초선효과가 규명된 점은 삼선도전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이 많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삼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 불신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또 기초단체장의 높은 교체율이 현직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배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중앙정치에 대한 중간평가의 영향에 좌우되어 여당소속의 기초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치의 제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특히 교체율이 매우 높은 광역의원선거의 경우 선수효과에서 다선의원이나 초선의원이나 득표율에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은 지방의회의 연속성과 전문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간 지방선거를 조망해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 이슈나 영호남 지역주의 등으로 중앙정치의 정당 영향이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직의 후보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방선거가 단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아닌 지방의 행사로서 지방정치의 통제기능도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이들 주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차이, 즉 정당요인의 영향은 기초선거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하며, 현직의 후보요인은 지방의원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현상은 전국 동시 실시 지방선거가 지닌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현직의 직·간접인 효과가 모든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관심 속에 평가받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또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늘어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의 새로운 자리매김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직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직의 재출마율이 낮고 교체율이 높아 기관구성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정당공천이 중앙정치 영향에서 자율적일 수 없는 지방 정치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치적 분권의 시급함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역대 지방선거의 집합자료를 이용한 통시적인 비교로 각급 지방선거의 특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변화의 추이를 살펴면서 나타나는 각급 지방선거의 특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특히 2006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기초의원선거는 흥미로운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또 본 연구의 거시적 자료가 지닌 한계는 미시적인 자료를 통하여 현직의 인지효과와 공직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현직효과에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현직의 출마, 또는 불출마 요인과 함께 정당의 재공천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OUGHOPIA』, 24(1): 207-232.
- 강경태. (2009).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225-253.
- 김정기. (1999).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3(1): 269-291.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179.
- 박재욱. (2007). 200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21세기정치학회보』, 17(3): 281-309.
- 성기중. (2009).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한국동북아논총』, 50: 253-284.
- 송광운. (2008). 한국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동북아연구』, 23(2): 119-137.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3): 145-164.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61.
- 이곤수·김영중. (2010).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355-371.
- 이동윤. (2010).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논쟁: 부산지역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1): 71-108.
- 임성학. (2005).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39(2): 195-215.

- 조성대. (2003).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지역주의 정당경쟁과 광역의회의 활동. 「21세기 정치학회보」, 13(1): 259-274.
- 주용학. (2007).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29-51.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73-99.
- 황아란. (1999). 6·4 기초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황아란. (2012). 지방선거와 현직효과. 「지방행정연구」, 26(4): 3-26.
- 황아란. (2013).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47(5): 277-295.
- 황아란. (2014).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0(4): 63-93.
- 황아란. (2015).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 「지방행정연구」, 29(3): 3-26.
- Ansola-behere, S., J. Snyder and C. Stewart. (2000). Old Voters, New Voters, and the Personal Vote: Using Redistricting to Measure the Incumbency Advantag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17-34.
- Alford, J. and J. Hibbing. (1981).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Journal of Politics*, 43(4): 1042-1061.
- Ashworth, S. and E. Bueno de Mesquita. (2008). Electoral Selection, Strategic Challenger Entry,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Journal of Politics*, 70(4): 1009-1025.
- Banks, J. and R. Kiewiet. (1989). Explaining Patterns of Candidate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4): 997-1015.
- Born, R. (1979).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the Growth of Incumbent Reelection Margins in the U.S. Hou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3): 811-817.
- Cain, B., J. Ferejohn, and M.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P. Converse, W. Miller, and 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over, A. (1977). One Good Term Deserves Another: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3): 523-541.
- Cox, G. and J.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2): 478-497.
- Erikson, R. (1972). Malapportionment, Gerrymandering, and Party Fortun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4): 1234-1245.
- Ferejohn, J. (1977). On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66-176.
- Fiorina, M. (1977).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The Bureaucracy Did I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77-181.
- Fiorina, M. (1981). *Respons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orina, M. (1989). *Congress, 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elman, A. and G. King. (1990). Estimating Incumbency Advantage without Bia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4): 1142-1164.
- Gordon, S., G. Huber, and D. Landa. (2007). Challenger Entry and Voter Learn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1): 303-320.
- Holbrook, T. and C. Tidmarch. (1991). Sophomore Surge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1968-1986.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6(1): 49-63.
- Jacobson, G. (1980). *Money in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acobson, G. (1987).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s*. Boston: Little, Brown.
- Jacobson, G. (1989). Strategic Politicians and the Dynamics of House Elections, 1946-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3): 773-793.
- Jacobson, G. and S. Kernell. (1983). *Strategy and Choice in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ewitt, S. and C. Wolfram. (1997). Decomposing the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S. Hous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2(1): 45-60.
- Mahyew, D.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295-317.
- Quattrone, G. and A. Tversky. (1988). Contrasting Rational and Psychological Analyses of Politic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3): 719-736.

---

황아란(黃雅蘭): 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부룩)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선거, 방법론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기초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의 당락과 현직효과(2015)”, “2014년 6·4 지방선거의 특징과 변화(2014)”, “현직 기초단체장의 재출마 결정요인 분석(2014)” 등이 있다(ahwang@pusan.ac.kr).

Abstract

**The Effects of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and Party Factors on the Concurrent Local Elections in Korea - An Analysis of the Pooled Data of Vote Shares of Candidates from the 1998 and the 2014 Elections**

Hwang, Ah Ran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s of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and party factors on the three different kinds of local elections: upper and lower-level mayoral and lower-level local council offices. The analysis of the pooled data of vote shares of candidates from the 1998 and the 2014 local elections, shows that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party in power and regional party support have a great influence on candidates' vote shares. But it also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effects of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that is, direct benefits earned as office holders and the scare-off effects deterring the entries of strong challengers. These incumbency advantages are stronger in mayoral elections than in local council member ones, while party factors have a stronger effect on upper-level elections than lower-level ones. Sophomore surge of incumbency effect is evidenced only in mayoral elections, while the re-running effects of non-incumbent candidates are found in all the elections.

Key Words: Local election, Incumbency advantage, Scare-off effect, Sophomore surge, Re-running effects